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제귀인에 관한 연구

-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신혜경 · 이영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두가지의 관점 즉, 유전적 결정론과 사회문화적 환경론이 있다. 비교문화적 상담은 인간행동에 대해 사회문화적 영향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인식과 이해 위에 상담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비교문화적 상담을 위한 한 시도로 우리나라 상담자와 내담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문제귀인성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문화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성별, 지역별, 사회계층별로 구분을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는 상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 50명과 청년기에 속하는 내담자 75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제작한 문제귀인점사로 문제상황에 대한 원인과 해결의 책임소재를 내부 혹은 외부로 묻는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상담자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서 내부귀인을 하고 있다. 내담자 역시 내부귀인을 하고 있지만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대도시 출신이 지방출신보다, 중상류층이 하류층보다 더 내부귀인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는 상담자가 내담자 보다 유의미하게 더 내부귀인을 하고 있다. 단, 상류층과 하류층의 경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인간행동을 유전적, 개인적 특성의 산물로 보느냐, 사회문화적 환경의 산물로 보느냐, 혹은 어느쪽에 비중을 더 두느냐에 따라 행동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의 원인을 자기 내부에 두거나 아니면 타인, 어떤상황 등과 같은 외부에 두게 된다. 마찬가지로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기 내부나 외부의 어떤 것에 두고자 한다. 행동의 원인이나 해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내부에 두느냐, 외부에 두느냐 하는 것은 개인에게 지각된 행동의 원인에 대한 탐색

을 지도하는 귀인이론적 접근과 개인은 행동결과와 그 원인에 대해서 인과적 기대와 신념을 갖는다는 Rotter(1966)의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귀인이론가들(Jones et al. 1972)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내적 특성-성격, 능력, 동기 등이나 외적인 것-상황, 타인, 운 등의 두가지 방향으로 원인을 귀속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또 Rotter는 행동에 따르는 강화의 효과를 자신의 내적인 특성 혹은 외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일반화된 기대 내지는 신념으로 갖게 된다고 하

였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이 신념에 따라 어떤 행동의 결과를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보거나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외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때 내적통제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고자 하며,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가치를 둔다. 또 높은 성취동기를 갖고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반대로 외적통제자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타인이나 외부의 영향에 의존적이다. 낮은 성취동기와 사회활동에 대해서도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 (Lefcourt. 1966, Rotter. 1975).

이러한 귀인성향이나 내외통제적 신념은 개인의 세계에 대한 정향성(orientation to the world)을 결정하고(Brickman et al. 1982) 성격이나 인생관, 성취에 대한 태도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Sue(1975)는 세계관(worldview)이라는 개념으로 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세계관은 개인이 세계로 표현되는 자연이나 사회제도, 타인 등 외적인 것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따르면 세계관은 태도, 가치, 사고를 구성할 뿐만아니라 사고방식이나 의사결정, 행동의 방식을 좌우한다고 하였다. Sue와 Brickman등은 이러한 인지적 특성들을 문제상황과 관련시켜 모형화 하였는데, 먼저 Sue는 문제원인에 대한 책임의 소재(locus of responsibility)와 문제해결에 대한 통제의 소재(locus of control)에 관한 상호독립적인 심리학적 정향성(psychological orientation)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네가지의 서로 다른 세계관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문제에 대해 내부원인-내부해결(IR-IC) * 로 불리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개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개인의 힘, 성취동기, 경쟁력 등이 정신적 건강함의 원동력이 된다.

둘째는 내부원인-외부해결(IR-EC)의 유형이다. 여기서는 어려움이나 곤경에 대해서 자신의 게으름이나 능력의 부족으로 생각하지만 그 해결에 있어서는 능동적인 문제해결보다 수동적으로 대처하거나 외적 상황에 의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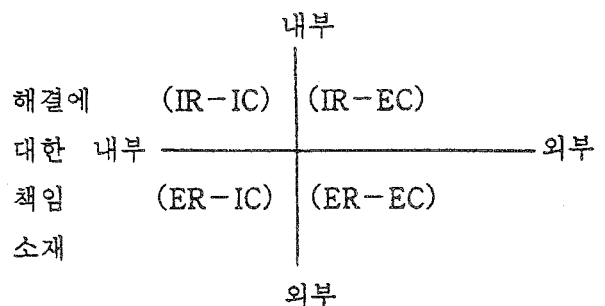
셋째는 외부원인-내부해결(ER-IC)의 유형이다. 개인은 목표가 좌절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많은 원인을 외적인 것에 둔다. 현재의 문제상황에 대한 외부의 환경적 힘을 크게 의식하지만 그대로 순종하지는 않는다.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며 자신의 해결능력도 믿는다.

네째는 외부원인-외부해결(ER-EC)의 유형이다.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을 모두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무력감을 갖게 된다.

위의 네가지 유형을 도식화 해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Sue의 세계관 유형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 IR-IC : Internal locus of responsibility-Internal locus of control

IR-EC : Internal locus of responsibility-External locus of control

ER-IC : External locus of responsibility-Internal locus of control

ER-EC : External locus of responsibility-External locus of control

Brickman의 모형도 Sue의 모형과 유사한데, 그는 세계관이라는 개념 대신 귀인양식(attribution sty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모든 도움의 상황은 문제원인에 대한 비난(blame)과 문제해결에 대한 통제(control)의 책임을 어디에 귀인시키느냐에 따른 서로 다른 성향을 보여주는 개인들의 귀인양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네가지의 귀인모형을 제시하고 거기에 속한 개인들의 특성을 열거 하였다.

첫째는 규범적 모형(moral model)인데 이 모형은 문제원인과 해결의 책임을 자신에게 귀인시킨다.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계름을 탓하고 능력과 노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타인이나 외부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지는 않는다. 자신감과 함께 그것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갖는다.

둘째는 계몽적 모형(enlightenment model)이다. 이 모형은 원인은 내부로, 해결의 책임은 외부로 들리는 형태이다. 이 모형에서 개인은 가장 죄책감이나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외부의 권위적인 것들에 의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Brickman은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지나친 죄책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문제의 본질이 내적인 것인지, 외적인 것인지에 관한 정확한 계몽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이 모형을 계몽적 모형으로 지칭하였다.

셋째는 보상적 모형(compensatory model)이다. 이 모형은 문제원인에 대해 자신보다는 외부의 어떤 것에 귀인시키며, 문제를 외부의 환경적 결핍으로 인해 자신의 잠재력이 박탈된 상태로 간주한다. 해결에 있어서는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이 모형의 개인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때 도움은 박탈되고 결핍된 것들을 보상해 주는 과정이다.

네째는 의료적 모형(medical model)이다. 이 모형은 문제가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을 비난할 수 없으며, 해결도 개인이 할 수 없다고 본다. 이 모형에 속한 개인은 나약함이나 무력감을 느끼고, 강력한 외적처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이상 Sue의 세계관 유형과 Brickman의 귀인양식 모형들을 살펴 보았는데, 이들의 모형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책임을 모두 포함하여 문제귀인성향을 유형화 하고 있다. 이들의 모형은 문제귀인 전체를 네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문제원인이나 해결의 각각에 대한 개인의 귀인 성향 또는 내외통제적 신념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상황에 있어서나 일반적인 삶 안에서 이러한 개인의 인지적 특성들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즉 어떤 변인에 의해 한 개인이 내적 혹은 외적 귀인성향이나 통제적 신념을 갖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McGinnies, et al. 1974, Levenson. 1974, Garcia & Levenson. 1975, Sanger & Alker. 1972, Helms & Giorgis. 1980)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성, 사회계층, 인종, 민족에 따라 귀인성향이나 내외통제성에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상류계층이 하류계층보다 그리고 한 사회의 지배적 다수인종 또는 다수민족이 소수인종, 소수민족 보다 더 내적 귀인과 내적 통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Sue (1978)나 Jackson(1975)은 귀인이나 통제적 신념이 사회문화적 양육과 삶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인구학적 특성보다 사회문화적 특성의 영향력을 더 강조하였다. Sue는 한 사회에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을 주도하는 다수층과 주도를 받는 소수층이 존재하는데, 이 다수층의 지배와 억압으로 소수층은 보다 외적 귀인이나 외적통제 신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또 남성과 여성간의 인지적 특성 차이도 남성은 지배적이고 우월한, 여성은 순종적이고 열등한 특

성이나 의식을 갖도록 길들여지는 사회문화적 영향이 단순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인구학적 개념의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귀인성향이나 내외통제적 신념이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속에 형성되고, 또 그러한 특성들이 개인의 사고나 태도, 가치관, 행동 등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상담자가 자신과 내담자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그에 따른 인지적 특성에 관해 정보를 갖는 것은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상담자와 내담자가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책임을 내부로 돌리는가, 외부로 돌리는가 하는 것은 문제를 가진 내담자나 문제해결의 과정을 돕는 상담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인이다(Wills, 1978, Coates et al.1982). 이것은 내담자의 문제를 규명하고 그 원인과 해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밝히며, 상담에 대한 기대(내담자)와 상담방향, 상담목표를 설정(상담자)하는데 참조체계가 된다(Karuzs et al. 1982, Murdock & Fremont, 1989). 뿐 만아니라 상담자의 귀인성향이나 통제적 신념이 내담자의 그것과 일치할 경우 상담초기의 관계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Butcher & Hebert, 1985). 이러한 것들은 상담자가 사회문화적 바탕위에서 내담자의 인지적 특성이나 행동을 이해해야 하고, 특히 자신과 내담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를 경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하는 문화적 의식(cultural awareness)을 갖추어야 한다는 비교문화적 상담(이영희, 1982, Atkinson, Morten, & Sue, 1983, Casas, 1984, Pedersen, 1985)의 관점이기도 하다. 비교문화적 상담학자들에 따르면 상담자가 문화적 배경을 무시하거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없이 내담자의 인지적 특성이나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인해 관계형

성에 실패하거나 상담을 비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담자와 내담자들이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어떠한 문제귀인 성향^{*} 을 갖고 있는지, 또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상담분야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하위문화권들에 대한 비교문화적 상담의 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성, 지역, 사회계층을 다루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는 먼저 성은 연구학적 특성이기는 하지만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각각의 성역할정체감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성차를 보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잠재적인 사회문화적 변인으로 간주하였다. 또 지역과 사회계층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와 지방, 빈부간의 단절된 삶이 하위문화권으로 구분해도 좋을 정도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신혜경, 1990).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상담자는 사회문화적 배경(성, 지역, 사회계층)에 따라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귀인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2〉 내담자는 사회문화적 배경(성, 지역, 사회계층)에 따라 문제에 대한 귀인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3〉 상담자와 내담자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문제에 대한 귀인에 서로 차이를 보이는가?

* 문제에 대한 귀인성향, 세계관, 내외통제적 신념 등은 앞의 이론적 연구들에서 보면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귀인성향으로 통일하였다.

연구 방법

1. 사회문화적 배경 구분

성 : 성별은 인구학적 특성대로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지역 : 지역별은 지금까지 주로 성장한 곳 또는 생활의 장이 되어 온 지역을 대도시와 지방으로 구분하였다. 대도시에는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를 포함시켰으며, 지방은 시골이란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소도시이하 산간벽지까지를 포함시켰다.

사회계층 : 사회계층을 구분하기 위한 계층측정점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지표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에 기초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설정한 후 각 지표의 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개인의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Hodge et al. 1966)을 사용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표는 자신의 학력, 부모의 학력 및 부의 직업, 재산, 월수입으로 정하였다. 계층별 구분은 이 계층점수의 범위를 삼등분하였는데 그 기준은 계층점수의 $M \pm 0.43 SD$ 이다.

2. 연구대상

상담자 : 상담자는 한국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 회원들로서 상담 혹은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학교나 각급 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선정하였다. 귀인양식 검사지는 우편으로 70부가 배부되어 58부가 회수되었는데 이 중 응답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검사지를 제외하고, 총 5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상담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19명, 여자가 31명이다. 지역별로는 검사에 응답한 모든 상담자들이 대도시 출신이거나 대도시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상류층이 25명, 중류층이 16명, 하류층이 9명이다.

내담자 : 내담자는 실제로 상담을 의뢰하지는 않았지만 상담을 의뢰할 가능성을 근거로 우리

나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연령은 청년기에 속하는 18-25세이다. 내담자는 모든 지역과 모든 계층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학교, 혹은 직장등에 집단화 되어 있어서 군집표집(cluster sampling)을 하였다. 표집은 대도시와 지방의 대학 7개교, 전문대학 3개교, 실업학교 2개교와 산업체 및 근로자 기숙사 4곳에서 하였다. 검사지는 1000부를 배부하여 850부 정도가 회수되었는데 부적절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753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내담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284명, 여자가 469명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573명, 지방이 180명이며, 계층별로는 상류층이 315명, 중류층이 202명, 하류층이 236명이다.

3. 도구

문제귀인검사지 : 검사지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다. 먼저 상담자 10명과 실제 혹은 잠정적 내담자 50명에게 당면한 내담자 혹은 자신의 문제를 다섯가지 정도 순위별로 작성하게 하여 개인의 성격 및 정신건강, 가족 및 대인관계, 사회현상에 대한 갈등 등의 문제상황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상황에 대해 원인과 해결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지를 질문하여, 양극에 자기내부-외부를 설정한 답지의 5점척도 위에 V표를 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이 5점척도이므로 3점을 기준으로 1점에 가까울수록 내부귀인성향을, 5점에 접근할수록 외부귀인성향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전체 문항은 상담심리학 박사 1명과 박사과정 이수자 3명이 세차례에 걸쳐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 대학생 6명과 근로자 5명에게 질문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확인시켜 44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검사실시 이후 원인귀인이나 해결귀인 중 어느 하나라도 응답비율이 95%이상인 문항 4개를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40문항을 선택하였다. 이 귀인검사의 신뢰도는 원인

과 해결귀인에서 각각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α 계수 .75~.89를 보여 주었고, 반분신뢰도는 .60~.82를 보여 주었다.

사회문화적 배경 조사지: 성별, 주 성장지, 자신과 부모의 학력 및 직업, 재산, 월수입 등에 관한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절차

귀인검사는 1990. 5-1990. 7에 걸쳐 실시되었다. 상담자에게는 검사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1개월 후까지 회송되는 자료를 분석하였고, 내담자에 대해서는 직접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5. 자료처리

자료처리는 SPSS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적용한 통계적 방법은 다변인변량분석(multi ANOVA),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삼원변량분석(three-way ANOVA)이다.

연구 결과

상담자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내담자 문제원인과 해결에 대한 귀인에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연구문제에 대해 상담자의 성별, 사회계층별 문제귀인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1>과 <표2>에 제시되어 있다. 또 평균의 차이에 대한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다변인 변량분석의 결과가 <표3>에 제시되었다.

<표1>

상담자의 성별 문제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남성 M(SD)	여성 M(SD)
원인귀인	2.292(.32)	2.524(.41)
해결귀인	2.053(.29)	2.303(.39)

<표2>

상담자의 계층별 문제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계층별 문제귀인	상류층 M(SD)	중류층 M(SD)	하류층 M(SD)
원인귀인	2.489(.40)	2.297(.38)	2.536(.34)
해결귀인	2.237(.40)	2.031(.31)	2.442(.26)

<표3> 상담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문제귀인의 다변인 변량분석

사회문화적 배경	종속변인 문제귀인	Univariate F test.			Multivariate F test Hotellings
		Hyp.Ms	Err.Ms	F	
성	원인귀인	.153	.280	.548(.460)	.280(.756)
	해결귀인	.132	.321	.411(.521)	
계층	원인귀인	.537	.246	2.179(.114)	2.101(.078)
	해결귀인	1.199	.289	4.155(.016)	

() 안은 유의도

<표1>과 <표2>를 보면 상담자는 대체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해 성, 계층에 관계없이 내부귀인을 하고 있다. 성별 계층별 차이에 대해서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단지 하위종속변인들중 해결귀인의 경우만 .05수준에서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중류층이 상류층보다, 상류층이 하류층보다 문제해결의 책임을 더 내적인 것에 귀인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상담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문제귀인의 다변인 변량분석은 사회문화적 특성들 각각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이 문제

귀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일 변량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담자의 성×계층의 이원변량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표4>에 제시하였다.

<표4> 상담자의 성 계층에 따른 문제귀인의 이원변량분석

문제귀인	변량원	SS	df	Ms	F
원인귀인	성(A)	.35	1	.35	2.41(.128)
	계층(B)	.19	2	.10	.65(.530)
	A×B	.14	1	.07	.49(.618)
해결귀인	성(A)	.33	1	.33	2.79(.102)
	지역(B)	.61	2	.30	2.54(.090)
	A×B	.23	1	.11	.95(.394)

()안은 유의도

상담자의 문제귀인을 이원변량분석한 결과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결귀인의 경우 다변인 변량분석에서 하위종속변인별 분석을 통해 계층별로 차이를 보인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변인 변량분석에서도 해결귀인에 대한 계층별 차이가 유의도 .01수준에서는 의미가 없게 되므로 유의도 .05수준에서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담자의 문제귀인에 대해서는 내담자 문제귀인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다변인 변량분석의 결과가 <표5>, <표6>, <표7>, <표8>에 각각 제시되었다. <표8>에 의하면 내담자의 문제귀인은 성별, 지역별, 계층별로 .05와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하위종속변인과 관련시켜 검토해 보면, Univariate F test 결과는 성별 해결귀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하위종속변인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5><표6><표7>에서 이들 귀인점수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내담자는 대체로 문제귀인에 있어서 상담자와 마찬가지로 내부귀인을 하고 있는데,

사회문화적 배경별로는 대도시 출신이 지방출신보다, 중상류층이 하류층보다 더 내부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원인에 대한 책임은 더 내부 귀인을 하고 있으나, 해결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5>

내담자의 성별 문제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문제귀인	남성 M(SD)	여성 M(SD)
원인귀인	2.637(.64)	2.719(.49)
해결귀인	2.491(.62)	2.521(.55)

<표6> 상담자의 사회계층별 문제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지역별 문제귀인	대도시 M(SD)	지방 M(SD)
원인귀인	2.607(.49)	2.946(.61)
해결귀인	2.409(.52)	2.829(.65)

<표7> 내담자의 사회계층별 문제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계층별 문제귀인	상류층 M(SD)	중류층 M(SD)	하류층 M(SD)
원인귀인	2.510(.42)	2.649(.47)	2.958(.62)
해결귀인	2.344(.45)	2.452(.52)	2.779(.67)

내담자의 사회문화적 배경들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보기 위해 내담자의 성×지역×계층의 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표9>참조) 상호작용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주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해결귀인에 대해 성별 차이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변인 변량분석의 하위종속변인별 분석결과와 일치하였다.

끝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문제귀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제귀인점수 평균으로 t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표10>에 제시하였다. <표10>을 보면 상담자와 내담자는 계층을 제외하고는 성이나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원인귀인에서는 성,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상담자가 내담자보다 유의미하게 더 내부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계층별 비교에서 상류층의 상담자와 내담자는 내부귀인 성향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류층의 경우도 차이에 대한 유의도가 .045 수준으로 미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해결귀인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보다 유의미하게 더 내부귀인을 하고 있으나 상류층과 하류층은 각각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차이가 없어 원인귀인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8> 내담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문제귀인의 다변인 변량분석

사회문화적 배경	종속변인 문제귀인	Univariate F test.			Multivariate F test Hotellings
		Hyp.Ms	Err.Ms	F	
성	원인귀인	1.428	.279	5.126(.024)	3.405(.034)
	해결귀인	.270	.321	.840(.360)	
지역	원인귀인	15.271	.261	58.509(.000)	41.091(.000)
	해결귀인	23.460	.292	80.376(.000)	
계층	원인귀인	13.444	.246	54.583(.000)	28.997(.000)
	해결귀인	12.895	.289	44.683(.000)	

() 안은 유의도

<표9> 내담자의 성, 지역, 계층에 따른 문제귀인의 삼원변량분석

문제귀인	변량원	SS	df	Ms	F
원인귀인	성(A)	1.76	1	1.76	7.12(.008)
	지역(B)	2.46	1	2.46	9.97(.002)
	계층(C)	14.10	2	7.05	28.59(.000)
	A×B×C	.56	2	.28	1.14(.322)
해결귀인	성(A)	.51	1	.51	1.74(.188)
	지역(B)	7.02	1	7.02	24.04(.000)
	계층(C)	9.52	2	4.76	16.31(.000)
	A×B×C	1.18	2	.59	2.02(.134)

() 안은 유의도

〈표10〉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제귀인 차이에 관한 t검증

문제귀인	상담자, 내담자의 사회문화적 배경	상 담 자 M(SD)	내 담 자 M(SD)	t - test
원인귀인	성별 남성	2.29(.32)	2.64(.60)	2.47(.014)
	여성	2.52(.41)	2.72(.49)	2.12(.035)
	지역별 대도시	2.44(.39)	2.61(.49)	2.30(.022)
	지방	-	-	-
	계층별 상류층	2.49(.40)	2.51(.42)	.20(.841)
	중류층	2.30(.38)	2.65(.47)	2.95(.004)
하류층	2.54(.34)	2.95(.62)	2.01(.045)	
해결귀인	성별 남성	2.05(.29)	2.49(.62)	3.08(.002)
	여성	2.30(.39)	2.52(.56)	2.10(.036)
	지역별 대도시	2.21(.37)	2.41(.52)	2.58(.010)
	지방	-	-	-
	계층별 상류층	2.24(.40)	2.34(.45)	1.10(.274)
	중류층	2.03(.31)	2.46(.53)	3.21(.002)
하류층	2.44(.26)	2.77(.67)	1.47(.142)	

() 안은 유의도

논 의

앞 장의 결과들을 요약하고, 요약된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상담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문제귀인은 자료의 분석 결과 대체로 내부지향적이었다. 또 성별, 계층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Sue(1978)가 대부분의 상담자들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의 책임에 대해서 그 귀인을 내부로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한 이론적 주장과 일치한다. Sue는 상담이 서구사회에 적합한, 특히 백인 중산층의 문화적 가치—즉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성취지향적이며, 독자적인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태도(Gillin, 1955)등을 모든 집단이 열망하는 적용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가치를 내포하는 이론과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이에 근거한 상담자 교육을 받아 온 상담자들은 보다 내부지향적인 귀인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Mc Govern과 Newman(1986)의 연구에서는 정신분석적 접근을 제외하고 인지행동적 접근, 가족치료적 접근,

절충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상담자들이 모두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해 내부귀인을 하였다. 반면 Latting과 Zundel(1986)의 연구는 상담자들이 성이나 계층, 지역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문제원인은 외부로, 해결은 내부로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선행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과 불일치한 결과에 대한 조사에 응답한 상담자들이 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개인을 이해하고 비교문화적 의식을 갖도록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상담자들 중에서 표집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담자의 귀인성향을 밝히 고자 하였는데, 상담자들이 내부귀인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담자들에게 서구적 가치 기반 위에 형성된 상담이론이나 기법들을 강조하는 상담자 교육 및 훈련 program들이 적용되고 흡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문제귀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되는 성이나 계층과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이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상담자 교육, 훈련이 상담

자로서의 문제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내담자의 문제권인은 대체로 내부지향적이며,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원인 귀인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내부귀인을 하고 원인귀인과 해결귀인 모두에서 대도시 출신이 지방출신보다, 중상류층이 하류층보다 더 내부귀인을 하였다. Sue에 따르면 한 사회의 지배층, 다수층의 억압으로 인하여 피지배층, 소수층은 자기성장의 기회나 성취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외적귀인을 많이 하게 된다. Sue나 Latting 과 Zundel, Levenson, Sanger와 Alker등은 미국 사회에서의 피지배층, 소수층을 흑인이나 아시안계 인종, 여성, 사회경제적 하류층의 집단으로 보고 이들 집단은 보다 더 외적 귀인성향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Sue는 다수층과 소수층을 망라한 내담자들의 문제귀인은 인종, 성, 사회계층, 출신지역 등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내부귀인으로부터 외부귀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되고, 귀인성향의 차이도 클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문제귀인이 전체적으로 내부지향적이고, 여성이나 지방출신, 하류계층이 외부귀인에 가깝기는 하지만 내부귀인을 하여 성별, 지역별, 계층별로도 내부귀인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내담자들의 문제귀인 성향의 분포와 그 차이의 범위가 좁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오는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사회는 인종적 편견과 차별, 남성보다 열등하게 대접받는 여성의 지위, 또 오랜시간 자본주의를 고수하면서 누적되어 온 빈부격차 등이 사회문제로 표면화 되어 있어 소수층의 개인 스스로가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력을 크게 의식할 수 있다. 반면 우리 사회는 미국사회에 비해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논란이 첨예

하게 부각될 수 있는 인종적 차별의 문제가 없고 여성의 지위나 대도시와 지방간의 차이 빈부격차도 이제 사회문제로 드러나는 시점에서 여성이나 지방출신, 하류계층의 집단에 속한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의식의 타도 있을 것이다.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문제귀인을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상담자가 내담자보다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더 내부귀인을 하는 것은 상담자가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의 책임에 대해 자기귀인을 강조하는 상담교육의 영향 탓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계층별로 상류층과 하류층에서 각각 상담자와 내담자가 비슷한 정도의 내부귀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상담자의 경우 계층변인이 어느정도 영향을 마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이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연령이 30-50세로 내담자와 10-2,30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제귀인 차이에 대해 연령변인의 영향을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연령에 따른 문제귀인의 변화가 개인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기성장과 성취에 대한 사회문화적 지지의 영향하에 있게 되는지, 역제의 영향하에 있게 되는지 혹은 둘 중 어느 것의 영향을 더 받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령 자체의 영향력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제귀인 차이는 그것이 인지적 특성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담효율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인지적 특성의 유사성과 상담효율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상반된 주장이 있다. 즉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지적 특성의 유사성은 상담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Carr. 1970, Mclachlan. 1974)과 비유사성이 상담효율성에 더 긍정적 변인이 된다는 주장(Landfield. 1971, Ed-

ward & Edgerly, 1970)이다. 전자는 초기의 상담 관계 형성에서 내담자에게 상담자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지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상담의 궁극적 목표가 내담자의 인지구조나 행동의 변화라고 할 때 상담이 효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내담자는 자신의 인지구조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므로 비유사성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유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귀인과 관련하여 Tracey(1988)의 연구는 상담초기에 상담자의 원인귀인이 내담자의 그것과 일치할 때가 불일치할 때 보다 상담 관계가 더 잘 형성되었다고 보고하고, 원인귀인의 일치가 해결귀인의 일치보다 효율적인 상담의 지표가 된다고 하여 문제에 대한 귀인성향의 유사성이 상담효율성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Tracey의 연구결과를 볼 때 상담의 초기에 상담자가 내담자와 부분적으로나마 유사한 문제귀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귀인 성향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통해 수용을 한다면 비유사성으로 인한 거리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상담자가 내담자 보다 유의미하게 더 내부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상담자들에게 비유사성에 따른 거리감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요구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기초로 상담과 관련해 특히 상담자에 대해 몇가지 시사를 하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의 상담자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문제에 대해 내부지향적인 귀인성향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상담이론의 바탕에 있는 가치와 일치하는 바람직한 특성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인간행동을 사회문화적 환경의 산물로 볼 때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만 볼 수는 없을 것

이다. 더군다나 외적인 환경이 사회구조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억압하고 장애를 주는 경우라면 문제원인에 대해 외적귀인을 하고, 개인의 적응이나 변화보다는 사회전체의 변혁을 도모하고자 하는 태도도 동기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귀인성향에 관해서는 인간관, 사회관 등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보다 깊고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상담자 또한 이에 대해 융통성 있는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귀인 성향이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배경의 맥락속에서 내담자의 인지적 특성이나 행동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담자는 자신과 내담자의 문제귀인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차이로 인한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귀인성향의 영향변인인 자신과 내담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하는 문화적 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신혜경(1990) 문화지향적 상담모형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원우논총, 제8집, 63-88.
- 이영희(1982) 문화와 상담: 문화지향적 상담을 위한 시론, 숙명여자 대학교 논문집, 제 23집, 119-144.
- Atkinsn, D. R., Morten, G. & Sue, D. W. (1983).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A Crosscultural Perspective(2nd ed.). Dubuque. IA: Brown.
- Brickman, P., Rabinowitz, V. C., Karuza, J., Coates, D., Cohn, E. & Kidder, L.(1982). Models of helping and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37, 368-384.

- Butcher, E. & David, J. H.(1985). Locus of control similarity and counselor effectiveness:A matched case stud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4, 103-108.
- Carr, J. E.(1970). Differentiation similarity of patient and therapist and the outcome of psychotherap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6, 361-369.
- Casas, J. M.(1984). Policy, training and research in counseling psychology:The racial/ethnic minority perspective. In Broun, S. & Lent, R.(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783-831). New York:Wiley.
- Coates, D., Renzaglia, G. J., & Embree, M. C(1982). When helping backfires:help and helplessness. In J. D. Fisher, A. Nadler & B. Depaulo(Eds), *New directions in helping. Volume 1 Recipient reactions to aid*. New York:Academic press.
- Edwards, B. C., & Edgerly, J. W.(1970). Effects of counselor-client congruence on counseling outcome in brief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7, 313-318.
- Garcia, C., & Levenson, H.(1975). Differences between black's and white's expectations of control by chance and powerful others. *Psychological Reports*, 37, 563-566.
- Gillin, J.(1955). National and regional cultural value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34, 107-113.
- Helms, J. E. & Giorgis, T. W.(1980). A comparison of the locus of control and anxiety level of african black american, and White american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1(6), 503-509.
- Hodge, R. W. et al.(1966). Occupational prestige in the U.S:1925-1963. In R. Beondix and S. M. Lipset (Eds.), *Class, status and Power:Social stratific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2nd ed).New York: The Free Press, 322- .
- Jackson, B(1975). Black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Educational Diversity*, 2, 19-25.
- Jones, E. E., Kanouse, D., Kelley, H. H., Nisbett, R. E., Valins, S., & Weiner, B.(1972).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Morristown, New York.:General Learning Press.
- Karuza, J., Zevon, M. A., Rabinowitz, V. C. & Brickman, P.(1982). Conflicting models of helping in applied setting. In J. A Wills(Ed), *Basic processes in helping relationship*. New York:Academic Press.
- Landfield, A. W.(1971). *Personal construct systems in psychotherapy*. Chicago:Rand McNally.
- Latting, J. E. & Zundel, C.(1986). Worldview differences between clients and counselors social casework.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November, 533-541.
- Lee, Young-Hee(1981). Innovation for Counselor Education in korea. *East West Education*, 2(2), 27-46.
- Lefcourt, H.(1966).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65, 206-220.
- Levenson, H.(1974). Activism and powerful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38, 377-383.
- McGinnies, E., Nordholm, L. A. & Ward, C. D.(1974). Sex and cultural differences in perceived locus of control among students in five countr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3), 451-455.
- McGovern, M. P., Newmman, F. L. & Kopta, S. M. (1986). Metatheoretical assumptions and psychotherapy orientation:Clinician attributions of patients problem causality and responsibility

- for treatment outcom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76-481.
- Mclachlan, J. C.(1974) Therapy strategies, personality orientation and recovery from alcoholism.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Journal*, 19, 25-30.
- Murdeck, N. L. & Fremont, S. K.(1989). Attributional influences in counselo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417-422.
-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 Rotter, J. B.(1975). Some problems and misconceptions related to the construct of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6-67.
- Sanger, S. P. & Alker, H. A.(1972). Dimensions of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28, 115-129.
- Sue, D. W.(1975). Asian americans : social-psychological forces affecting their life styles. In S. Picou & R. Campbell(Eds), *Career behavior of special groups* Columbus, Ohio: Charless, E. Merrill
- Sue, D. W.(1978). Worldview and counseling.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6, 458-462.
- Tracey, T. J.(1988). Relationship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 congruence to psychotherapy outcom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7, 131-146.
- Wills, T. A.(1978). Perceptions of clients by professional helpers. *Psychological Bulletin*, 85.

〈ABSTRACT〉

Counselors' and Clients'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For Client's
Problem Cause and Solution: Differences on Socio-cultural
Background of Counselors and Clients.

Shin, Hea-Kyung and Lee, young-He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unselors' and clients'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for client's problem cause and problem solution and to explore differences of their attributions on socio-cultural backgrounds. The socio-cultural backgrounds in this study included three socio-demographic factors, sex, region, social class. It was supposed to show cultural differences within each factor in Korean society.

The attribution test composed of 40 items which question problem attributions (internal or external) was given to 50 counselors and 753 clients. The counselors who obtained M. S. degree and now are counseling in the field were sampled, The clients who are young adults, whose ages are ranging from 18 to 25 were sampled.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

First, the attributions of the counselors were internal, and didn't be affected by their socio-cultural backgrounds.

Second, the attributions of the clients were internal, but appeared to be affected by their socio-cultural backgrounds. The male clients showed higher internal attributions than the females, partially. The clients who came from city than province, who belonged to the upper class than the lower class showed higher internal attributions.

Third, differences of the attributions of counselors and clien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social class). The counselors were higher internality than the clients, but the counselors were not higher internality than the clients. in the upper and the lower class.